'감사보수 2배↑' 경영부담 vs 회계비용 美의 1/10

회계사 전성시대 빛과 그림자

〈4·끝〉 회계비용, 기업부담 논란

코스닥·코스피 시총 상위 20곳 회계감사비용 각 38%·11% 올라

한국공인회계사회 "韓 8500만원 수준일때 美 8.9억 기업규모 따라 최대 20배 차이"

〈코스닥 기업 2018회계연도 감사시간·비용〉

시총	종목	감사시간(시간)		감사비(원)	
		당기	전기 대비 증감	당기	전기 대비 증감
1	셀트리온헬스케어	5811	53%	380,000,000	43.40%
2	CJ ENM	10463	96%	725,000,000	130.20%
3	신라젠	1060	-18%	82,000,000	13.90%
4	바이로메드	701	32%	90,000,000	115.30%
5	포스코케미칼	3115	-9%	280,000,000	0.00%
6	메디톡스	1094	-29%	108,000,000	54.30%
7	에이치엘비	2165	66%	95,000,000	11.80%
8	스튜디오드래곤	1667	25%	150,000,000	0.00%
9	펄어비스	1990	168%	160,000,000	88.20%
10	코오롱티슈진	1615.5	-25%	158,000,000	-4.20%

*시가총액은 3월 29일 기준. /자료=각 사

올해 상장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시간당 회계감사 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감사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반발하고 있고, 회계업계는 한국의 회계감사 비용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9일 메트로신문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3월 29일 기준)의 감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3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감사비 역시 11.0% 늘었다.

시간당 감사 비용 역시 소폭 늘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시간당 감사 비용은 7만4000원으로 전년(6만9000원)보다 7.2% 늘었다. 반면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감사 비용은 시간당 8만3000원으로 지난해(8만2000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셈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가 더 깐깐해진 데다, 지식재산권 등 자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 회계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은 내부 회계 제도를 잘 갖춘 상태여서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회계 비용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의 회계 비용은 2년 전과 비교해서 17.4% 올랐다. 회계 비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新)외감법의 내용 중 하나인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회계업계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 규모별로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규정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감사시간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회계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회계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기업들도 수천만원의 감사비용을 내고 있다.

실제 신라젠은 지난해 5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감사비용은 8200만원을 지출했다.

또 재감사에 따른 감사비용 폭등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바이로메드는 올해 감사비로 9000만원을 썼다. 전년(418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보다 2.5배 가량 많은 감사비용을 내야했다. 지난해 2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에이비엘바이오가 지출한 감사비는 1억2500만원이다. 회계감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반면 회계업계는 한국의 회계비용은 세계적 기준에 비춰서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매출액 1200억~6000억원 규모 상장사의 경우 한국 감사보수는 85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10배가 넘는 약 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6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미국이 약 163억원으로 한국(7억4000만원)의 20배를 훌쩍 넘었다. 또 한국의 감사품질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란 점에서 투명한 회계가 한국의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설득도 덧붙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총은 1600조원 규모인데, 상장법인 감사보수는 3000억원 규모"라며 "설령 감사보수가 100% 증가해 기업들이 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도, 이 덕분에 주가가 1%만 오르면 16조원의 가치가 생겨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최대 6.3% ELS 등 9종

KB증권은 오는 12일까지 니케이225(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6.3%(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855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7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9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850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스텝다운형)는 Nikkei225지수와 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내일 해외주식 초보교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초보교실'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서 진행한다.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웅문G를 활용해 환전, 해외시세신청 등 기본 화면부터 해외주식 배당주 검색, 한국주식과 해외주식을 업종별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내집마련 꿈 안고 '脫 서울'… "수도권 알짜단지 찾아라!"

대우건설·대림산업 등 6곳 내달까지 총 7150가구 분양

〈4~5월 경기·인천지역 주요 분양 예정단지〉

구분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일반분양)	시공사
경기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51·59	1,614	대우건설
	성남시 중원구 금광 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85이하	5,320 (2,329)	대림산업
	시흥시 장현지구 C-3블록	시흥장현 동원로얄듀크 2차	84~101	345	동원개발
인천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84	778	신영(시행) 대우건설(시공)
	검단신도시 AA11블록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76~102	1,249	금성백조
	인천 미추홀구 주안 4구역	주안 캐슬&더샵(가칭)	38~84	1,856 (835)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자료=각 사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 수 있음.

지난 5년간(2014년 2월~2019년 2월) '탈(脫)서울'로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세종시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5년간 서울시를 벗어나(전출) 전국으로 이동한(전입) 순이동자는 56만6848명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순이동자가 58만85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4만8285명), 세종시(1만8217명) 순이었다.

가장 큰 탈서울 이유는 비싼 집값이다. 올 상반기 이런 수요자에게 경기, 인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가 여럿 분양된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오는 5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51·59㎡ 1614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다산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이자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단지 내 Uz센터를 비롯해 푸른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대림산업은 5월 중 경기도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5320가구 가운데 85㎡ 이하 2329가구를 분양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동원개발도 5월에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C-3블록 일대에서 '시흥장현 동원로얄듀크 2차' 84~101㎡, 345가구를 분양한다. 서해선 능곡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신안산선(2024년 예정) 등도 들어선다.

신영은 4월 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84㎡ 778가구를 공급한다. CGV 입점이 확정된 '지웰시티몰'이 함께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역세권이며 두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석남역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2020년 개통된다.

금성백조는 5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1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76~102㎡ 1249가구를 분양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예정) 도보권이며 향후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노선 직결 사업도 계획돼 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5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주안 캐슬&더샵'(가칭) 38~84㎡ 1856가구 가운데 8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의 중심지인 구월동 생활인프라와 중앙공원, 석바위공원이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5G에 올인' 이통사 1분기 전망 우울

개통위한 상각비·마케팅비 막대 이통3사 영업익 소폭하락 전망

5G 개통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국내 이통사의 1분기 전망에 그늘이 지고 있다. 그간 5G 개통을 위해 투입한 상각비, 마케팅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통신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하반기쯤에는 5G 유치가 점차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분석한 각 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SK텔레콤 3347억원, KT 3573억원, LG유플러스 1941억원이다.

유안타증권은 3사 모두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SK텔레콤은 컨센서스보다 7.5% 감소한 3095억원으로 제시했다. 5G 주파수 상각은 4월부터 시작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5G 개통에 의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ARPU(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4G 시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비스 개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ARPU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에 ARPU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APRU 추세에 실적과 주가가 동조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서울 강남구 SMTown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